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카드사가 '손해배상'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6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도난이나 위조,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해 고객 이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 등 여신 금융전문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또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 시금융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유로 규정했다.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해킹에 의한 사고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해킹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해

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악용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책임의 전부를 지지 않는다.

서비스이용 제한 시 사전고지 원칙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시스템 유지보수나 점검을 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전이나 해킹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통

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처리와 관련한 고객의 이의제기 절차 안내와 사고조사 협력 의무도 규정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은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면책사유의 범위를 관련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



하림, '엄마는 휴가중' 이벤트 진행

7일부터 31일... 전국 롯데마트 매장·롯데마트몰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내준 고객들을 위한 특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밝혔다. ㈜하림은 일상에 지친 주부들을 위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기 위해 국내 최고급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하림 자연실록과 함께하는 싱글 와이프 '엄마는 휴가중'>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7일(목)부터 31일(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과 롯데마트몰에서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호텔 프리미엄 패키지, 롯데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방법은 <하림 자연실록 함께하는 싱글 와이프 '엄마는 휴가중'> 스티커가 부착된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에 적힌 이벤트 응모

번호를 롯데마트몰 홈페이지(www.lottemart.com)내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 10쌍(총 20명)에게는 한강과 아차산을 배경으로 도심 속 완벽한 휴식을 선사하는 6성급 호텔 비스타 워커히 서울에서 1박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하림 자연실록을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스페셜 코스와 특별 공연이 함께하는 디너 파티, 스위스 명품 코스메틱 브랜드 발품의 '브이 스파(V SPA)' 바디마사지 이용권 등 남만족하면서도 프라이빗한 프로그램을 선물할 계획이다.

2등 500명에게는 롯데상품권(1만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2018년 1월 10일(수)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롯데마트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서비스수지, 사상 역대 최대 '적자'

10월 사상 가장 기간인 추석 연휴동안 해외로 나간 여행객이 쓴 돈이 늘면서 서비스수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냈다. 경상수지는 68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흑자 폭은 반토막 났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57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 2012년 3월 이후 6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 4월(39억8000만 달러 흑자)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전월(122억1000만달러)보다 64억9000만 달러(53.1%) 급감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 것은 서비스수지 적자가 나빠진 영향이 크다. 10월 서비스수지는 35억3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 1월(33억4000만 달러 적자) 이후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냈다. 이는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행수지 적자는 16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지난 7월(17억9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두번째로 적자 폭이 넓었다. 여행수지 적자는 늘어난 반면 '사드 갈등'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행 지급은 27억5000만 달러로 전월(25억3000만 달러)보다 늘고, 여행 수입은 12억2000만 달러에서 10억8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실제 10월 해외에 나간 출국자수는 지난해 같은달(186만6000명)보다 19.6% 늘어난 223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찾은 입국자수는 116만6000명으로 전년동기(158만8000명)보다 26.6% 줄었다. 이중 중국인 관광객은 34만5000명으로 같은기간 49.3% 급감했다.

상품수지는 86억 달러 흑자를 냈지만 전월(149억8000만 달러)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같은달(91억6000만 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로 기업들의 영업일수가 줄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다. 상품수지에서 수출은 반도체 시장 호조로 444억3000만 달러를 기록, 1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월(540억7000만 달러)보다는 축소된 수준을 나타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2억1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1억4000만달러 늘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35억4000만달러 늘어 지난 8월 이후 석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뉴스

식약처, 연말연시 소비 급증 '케이프 업체'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프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뉴스

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 외장재용 언더바디 쉴드 개발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김인관)은 자동차 내·외장 부품소재 전문 생산 업체인 플렉스플로라이(유)(대표 박찬환)와 자동차 외장재용 경량 언더바디 쉴드를 개발했다.

자동차의 언더바디 쉴드는 도로 바닥의 이물질, 장애물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고 소음을 차단하며, 공기 역학적 디자인에 따라 연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 출시되고 있는 언더바디 쉴드 제품은 유리섬유가 적용되어진 제 품으로, 제조 공정 시 작업자의 인체 유해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리섬유 대신 천연섬유

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제품의 물성은 유지하면서도 20% 경량화된 제품이 다.

개발 제품은 열가소성 섬유(PP, PET 등)에 천연섬유인 Kenaf를 혼합한 부 직포를 이용하여 외부 충격 및 소음에 대해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김인관)은 국내의 환경규제에 대응한 자동차 외장재용 경량 언더바디 쉴드 개발이 자동차 산업의 환경규제 대응 및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환경규제에 대응한 다양한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러시아 월드컵 향한 불씨 당긴다

현대차, 승리 기원 Be There With Hyundai 공모전 실시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축구팬들과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열기를 불씨를 당긴다.

FIFA(국제축구연맹)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주)가 내년 개최 예정인 <2018 러시아 월드컵> 흥행을 위한 사전 활동으로 월드컵 승리 기원 슬로건 공모전인 'Be There With Hyundai'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FIFA가 함께 주최하는 'Be There With Hyundai'는 전세계 축구팬들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중 본인이 응원하는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응원 슬로건을 직접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처음 실시된 'Be There With Hyundai'는 글로벌 축구팬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대표적인 월드컵 사전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매 월드컵마다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2월 28일까지 슬로건 공모를 진행하며, 4월 중 월드컵 출전 국가별 3개의 우수 슬로건을 선정 후 5월에 최종 슬로건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슬로건은 월드컵 대표팀 선수단 공식 버스에 랩핑될 예정이다. 월드컵 기간 동안 해당 대표팀을 응원하는 포어로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소개된다.

또한 최종 슬로건을 제안한 32명(국가별 1명)에게는 각자 응원하는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 티켓, 호텔 숙박권, 항공권 등이 포함된 월드컵 경기 관람 패

키지도 제공될 예정이다.(동반 1인 포함) 뿐만 아니라 경기 당일에는 각 대표선수단 공식 버스를 인솔하는 유도 차량에 직접 탑승해 대표팀 선수들과 호텔부터 경기장까지 함께 이동하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진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각 국가별 2, 3등 슬로건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와 현대 프리미엄 세트(데플리카 볼, 가방, 모자 등)를 부상으로 제공하는 등 축구팬들이 즐길 수 있는 사전행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내년 2월 28일까지 FIFA 공식 사이트내 이벤트 페이지(www.fifa.com/betherewithhyundai)에 접속한 후, 본인이 응원하는 국가 대표팀을 선택해 응원 슬로건(32개 진술 국가별 1인 1회 限)을 제출하면 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세계 축구팬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벤트를 통해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축구팬들에게 흥미롭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9 미국 여자 월드컵을 시작으로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식 파트너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2022년 월드컵까지 지속 후원할 예정으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자 산 매 각 공 고

사 건 2015회합 31호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

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매각 대상 자산의 표시

물건 번호	부동산 번호	부동산 주소/물건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1	1	익산시 왕궁면 장항리 1366	공용부지	16,043.7㎡	씨티아이
2	2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공용건물	6,113.2㎡	
3	3	익산시 왕궁면 장항리 1366	사출성형기	12평	

※ 부동산 번호 2, 부동산에는 제시의 건물 포함

2. 매각방법 및 일시, 장소 등

가.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나. 매각조건

- 입찰조건을 고려하여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석에서 최고가 이상으로 제일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1) 입찰마감일, 최저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최저입찰보증금(원)		최저입찰가격(원)		%	비고
1회차	2017. 12. 11. 09:00	물건번호 1	6,276,293,720원	100%	익산시 왕궁면 장항리 에 한함
2회차	2017. 12. 11. 10:00	물건번호 1	4,393,405,646원	70%	
3회차	2017. 12. 11. 11:00	물건번호 1	3,075,323,952원	49%	

※ 입찰보증금은 낙찰가의 10%

- 개찰은 매회차 마감시 이후 10분에 실시하며, 회망자는 참관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입찰서 양식 : 채무자 회사에 비치
- 입찰서 제출방법 : 관리인의 입찰관련 사무실에 현장 접수되어야 하며, 반드시 입찰본부표면에 (주)씨티아이 매각 입찰서 제출"이라고 표시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장소 :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관리인실

라. 입찰의 성립과 낙찰자 결정 등

-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부동산 및 기계기구 입찰매각이다.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입찰마감 일정시까지 입찰장소에 접수(도착)된 입찰서만 유효하며, 입찰시간 이후에 도착한 입찰서는 접수받지 않고 효력이 없음.
- 입찰조건을 고려(임대비용을 입찰가에서 공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찰결과에는 낙찰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안내함.

3.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결과를 통지 받은 후, 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낙찰이 무효 될 경우, 자선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득함).
나.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찰금의 10%로 하며, 매매잔금은 낙찰 및 계약체결에 대한 법원의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다. 낙찰자 결정과 매매계약은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의 허가를 득하는 것을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이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별도의 이자 없이 낙찰자에게 반환한다.

4. 입찰서류

가. 입찰서 : 별지양식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인 주민등록부등본) 라.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위 매각대상물을 입찰 당시의 현황대로 인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인에 대하여 위 목적물 자체의 하자 (파손, 수량불일치 등)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전 위 매각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신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매수자는 매도인(희생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에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2019년까지 임대해 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매수사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차입은 매도인의 회생계획안에서 책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함). 더불어 매도인이 입찰한 물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없을 경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최우선하여 제입대를 해주어야 합니다.

6. 기타

이 건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씨티아이 기획경영팀(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전화 063)838-4747, 팩스 063)838-4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4. 희생채무자 (주)씨티아이의 관리인 유 병 호